



남국(南國)의 겨울풍경 15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자연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들이 흰눈이 쌓인 한라산과 유채꽃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국기자

## 주말 다시 맹추위... 산간지역 눈소식

주말 제주지역에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15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주말인 17일 제주지역은 중국 북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최대 5℃가량 낮아 추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4℃, 낮 최고기온은 6~8℃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다.

또 기상청은 17일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 산지에 가끔 눈이 내리고, 중산간 이하 지역에도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측했다.

기상청은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산간도로와 평화로·번영로 등 중산간도로는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인다고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경사진 도로를 다닐 때도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추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기자

## 청년 '엑소더스'... 2050년 6만명으로 '뚝'

지난해 제주 청년인구 16만8726명... 전체의 24.9% 비율 해마다 줄어... 2018년부터 순유입도 감소세 전출 후 서울·경기 거주... 사유 직업-가족-교육 순

제주의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도내 청년 인구는 해마다 감소해 2050년에는 현재보다 6만명 가량 더 줄어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2022 제주 청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청년 인구(만 19~39세)는 16만8726명으로 제주도 인구(67만6759명)의 24.9%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26.9%)과 비교하면 1.9%p(포인트) 낮았다.

도내 청년 인구 비율은 2011년 28.2%에서 2013년 27.3%, 2015년 26.9%, 2017년 26.7%, 2019년 26.2%, 2021년 24.9%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11년 대비 제주도 전체 인구는 17.5%(57만6156명→67만6759명), 60세 이상 인구는 63.0%(9만8355→16만298명) 증가한 반면 청년 인구는 4.0%(16만2252명→16만8726명) 증가에 그쳤다.

도내 청년 인구는 향후 28년간 매년 감소해 2050년에는 10만6000명(15.2%) 수준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청년 전입은 3만7885명,

전출은 3만7834명으로 순유입이 51명이지만 전년 순유입 인구(373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2012년 순유입으로 전환된 후 2017년까지 유입규모가 확대되다가 2018년부터는 감소 추세다.

타 시도를 떠나 제주로 전입한 청년들의 이전 거주지는 수도권(56.1%)이 가장 많았고 영남권(21.8%), 호남권(9.3%) 등 순이었다. 전입 사유로는 직업이 39.1%로 가장 많았고 가족(37.5%), 자연환경(11.9%), 교육(7.4%) 등 순이었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 새로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이 31.5%로 가장 많았고 경기(25.4%), 경상(9.7%), 부산(7.5%), 전라(7.0%), 충청(6.2%), 인천(5.5%) 순이었다. 전출 사유로는 직업이 44.9%로 가장 많

았고 가족(24.3%), 교육(14.2%), 주택(8.6%) 등 순이었다.

청년 10명 중 4명(43.2%)은 스스로 주거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중 본인 자금(37.1%), 가족 지원(25.8%), 정부 대출(21.5%) 순으로 주거비용을 마련하고 있었다.

정주 의사에 대해 청년 10명 중 7명(69%)은 앞으로 3년 후에도 제주도에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고, 나머지 3명(6.5%)은 제주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싶은 이유는 학교 및 직장, 사업장 위치(41.5%), 연고지 생활 터전(31.4%), 자연환경(16.4%) 등 순이었다. 반면 거주하고 싶지 않은 이유는 학교·직장의 부재(56.6%), 문화 인프라 부족(17%), 경제적 부담(11.5%) 등 순이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 제주자치도 내년도 예산 7조639억원

도의회 어제 의결... 교육청은 1조5935억원 규모

역대 최대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열린 제41회 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7조639억원 규모의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제주도와 합의하지 못하고 결국 15일 본회의가 열리기 30분 전에 회의를 속개하고 제주도와 적극적으로 합의, 조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예결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제주도 IT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20억원 등 538억원을 삭감했지만, 제19회 세계농아인대회 6억원, 2023 전국 풋살대회 행사사업비 1억1000만원 등 총 538억원을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일반 예비비 등 2개 특별회계에서 총 750만원을 감액했고, 해외 선진 하수처리시설 결합 국제화 협의의 750만원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1조5935억원 규모의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도 의결됐다. 예결위는 세출예산부분에 사업의 우선순위와 적정성을 거

쳐 교원 인건비 사업 등 404억9700만원을 감액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등 사업에 404억 9700만원을 증액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나아가 새로운 미래산업의 틀을 마련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예산을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춰 바르고, 투명하게 집행해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2025년부터 시

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평가체제를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됨으로써 학교에서 교수·학습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면서 "오늘 의결한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주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에 차질없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복합위기로 인한 경제의 한파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 전망이다"면서 "새해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도민의 삶에 활기가 돌고 제주경제 회복을 위해 적기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 코로나19 신규 516**  
잠정집계 15일 <17시 기준> 누적 35만6321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하루 7000보**  
건강한 서귀포시 행복한 시민  
삼시세끼 삼삼하게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음주문화개선 캠페인

**이젠, 알코올 Stop! 뒤.집.잔!**

모두의 행복이 시작되려면 알코올 멈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술잔을 뒤집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한 서귀포!

정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

**‘알코올 멈춤으로 시작되는 약속’**

- 술보다 술자리 분위기가 좋다면 문화회식해요!
- 원샷보다는 뒤집잔을 실천해요!
- 폭탄주 마시다가 폭탄으로 변해요!
- 공공장소는 음주보다는 음악이 어울려요!
- 술보다는 물을 권하는 센스있는 선배가 멋져요!

알코올, 멈추면 # **시작**

무기력에서 #할기시작

불면증에서 #꿀잠시작

우울증에서 #미소시작

알코올 멈추면 행복이 넘쳐요!

**Jeju** 제주특별자치도 | 서귀포시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